

© 2007 여성신문

날이 너무 더워 폭폭 찢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6월의 여름이 야속하기만 한 날, 무거운 숨처럼 느껴지는 몸으로 여성재단을 찾아 올라가니 옷이 폭신 젖는다. 좁은 사무실에 웅기종기 앉아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이들의 상기된 얼굴이 나를 보더니 시원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시원한 물을 마시라고 권한다. 일이 분주해 보이는데도 찾아오는 이에게 다사로운 관심을 갖는 그들의 마음의 여유 한 자락이 내게 넓은 부채처럼 바람을 일으킨다. 좋다.

시원한 남빛 정장을 입고 머리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박영숙(75) 이사장님이 도착하신다.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 5분 전에.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평화로운 미소를 보내신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일제 폭압기에 탄생 모친 "亂中에 태어나 難 속에서 사는 아이"

나이도, 직책도, 살아온 화려한 경력도 느껴지지 않는, 오이냉국처럼 소박하고 시원한 선생님의 모습이 젖었던 몸을 식혀주는 것 같았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게재한다고 하니 소녀처럼 웃으시며 '당당하고 겸허하게' 말하신다.



▲ 한국여성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박영숙 이사장. 대학생 시절부터 시작해 여성·환경·정치 운동을 두루 거쳤을 박 이사장은 마지막 '운동' 목표를 여성재단을 통해 미래 세대의 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로 정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 정대웅 기자
asrai@womennews.co.kr

▲ 1930년 당시 박 이사장의 아버지. 대체에너지 연구원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이며 개화된 인물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9세 되던 해 29세의 젊은 나이로 유명을 달리 했다.

"나는 시민사회운동가, 활동가, 여성운동가로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 부분은 할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
"亂中에 태어나 難 속에서 사는 아이"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다 한다. 일본 군부와 우익은 만주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1931년 9월18일 류타오거우 사건(柳條溝事件, 만철폭파사건)을 조작해 류타오거우에서 스스로 만철 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측 소행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만철 연선에서 북만주로 일거에 군사행동을 개시하던 1932년, 그는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과 만주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다시 평양의 정의여학교, 전라남도 광주의 전남여고를 거쳐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역동적이고 다사다난했던 민족의 역사를 개인사 안에서 충분히 발현한 민족 증인의 삶을 산 활동가이다.

개화된 집안에서 기독교문화 접하며 성장

9세 때 부친 사망으로 첫번째 큰 상실감

조선시대 가장 차별을 받았던 평양은 어느 곳보다 일찍 개화한 곳이었다. 박영숙의 부모도 서양문물의 선진화에 눈뜬 평양 사람이었다. 자신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교육과 의료에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부유함을 누릴 줄 아는 개화인이었다. 그들은 자녀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믿었던 교회에 자녀들을 기꺼이 보냈고, 자녀들이 병치레를 할 때마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찾으며 새로운 문물에 몸과 마음을 열었던 개



▲ 1946년 만주에서 평양으로 귀향하여 정 의 여중을 다닐 때의 모습.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박 이사장으로 월남시 사진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 그나마 이 사진이 그의 가장 어 렷 적 모습이었다.

화된 집이었다. 아버지보다 2살 위였던 어머니는 6남매를 3살 터울로 낳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업주부였다. 아버지는 도요타 회사의 대체에너지를 연구하던 연구원이었다.

박영숙의 집은 평양의 중심가였던 대동강변 수동이었다. 그곳은 중국 호떡집들과 중국 상인들이 많았던 곳으로 번창하기도 했던 곳인 동시에 일제 강점기로 인해 중국 사람들이 차별받던 곳이기도 했다. 민족차별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절, 선의의 거짓말이 난무하던 시절의 어수선했던 성장기 아이들의 내면을 차지하던 불운의 시기이기도 했다. 만주에서 중국인들이 조선 사람을 때려죽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평양에 있던 중국 상인들을 때려죽이는 폭력사태를 일으킬 정도의 민족적 인 끈을 느끼게 하는 반면, 일본의 강한 식민정책으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던 혼돈의 시대였다.

박영숙이 9살 되던 해 29세이던 아버지가 장이 잘못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암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 6남매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천지사방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아버지는 서울 청량리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의 사망이 내겐 첫번째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6명의 아이를 데리고 과부가 되어서 가족을 책임지게 되어 암담한 현실에 놓이자 아버지 회사 중역이 찾아와 자녀 둘을 사장 댁에 양자로 들여보내라고 권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는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 젊은 과부였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하겠다고 하셨다. 그것이 내게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해서 아무도 양자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던 것 같다."

양자로 보내면 아이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켜낸 것이나, 딸들을 애보기로 보내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흔한 상황이었는에도 가정이 어렵다고 딸들을 다른 집 애보기로 보내지 않은 어머니의 현명한 처사는 가족의 울타리를 굳건히 지켜낸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여성의식이 언제부터 생겼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나는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차별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지역의 분위기도 그랬지만 집 분위기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었다. 호떡을 사와도 똑같이 나누고, 밥을 푸는 것도 아버지 것을 먼저 푸고 자녀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했다."



▲ 박 이사장의 가족은 월남 후 작은 아버지의 근무처인 전남 광주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연고로 후에 평민당 부총재가 됐을 때 세간에선 "박영숙이 광주 사람이어서 김대중의 사람이 되었다"고들 했다. 사진은 전남공립여자중학교 5학년 재학 당시 모습으로, 위에

한명도 양자 안보내고 6남매 키운 어머니 잠시 만주로 이사갔다 해방직후 평양 귀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만주에 사는 친할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자주 만주를 왕래하셨다. 친할머니는 만주에서 양조장에 누룩을 대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부자였다. 우리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즈음 만주로 아주 이사를 했다. 해방 되던 해 만주에서 동영소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입학 준비를 했다. 만주에는 중학교가 일본계와 중국계뿐이어서 나는 일본계 학교에 지원했다."

면접에서 시험관들은 박영숙에게 "가츠키가 있어서 입학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가츠키'란 말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심성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에게서 융통성 없고 물러서지 않는 내면의 성향을 보았던 것 같다.

서 둘째줄 왼쪽 두번째가 박 이사장이다.

"해방이 되자마자 보따리 보따리 꾸려 길림에서 남포진을 거쳐 수십개의 터널을 지나며 조선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것은 수십개의 터널을 지나하는 동안 기차 안에 있던 대부분 조선인 승객들은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모든 것을 수탈당했다는 것이다. 중국인 기관사는 터널마다 멈춰서 승객들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일본 치하에서 조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근근이 생명 유지를 했던 억울함에 대한 분풀이였던 것 같다."

당시 일본인은 1등급 파란 통장, 조선인은 2등급 노란 통장, 중국인은 3등급 붉은 통장을 이용해야 했다.

배급품도 달랐다. 일본인은 설탕과 생과자도 받을 수 있고, 조선인은 그것을 제외하고 받았으며, 중국인은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물품만을 받으며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

평양으로 돌아오자 평양은 함경도 말을 쓰는 사람들이 관장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며, 이미 예전의 평양이 아니었다. 평양에 있던 서문여학교, 정의여학교, 송의여학교 등 3개의 여학교에는 공산당이 들어와 서문을 제1, 정의를 제2, 송의를 제3 여학교로 개명을 했고, 박영숙은 제2 여학교인 정의여학교에 입학했다.

정의여학교 시절, 주말마다 마스게임에 불려나가 연습을 강요당했다. 정의학교는 3·1절 때 마스게임을 거부하는 데모를 했다. 퇴학당할 것을 각오하고 마스게임을 거부하며 강당에 모여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도 애국가를 부르면 그때 기억 때문에 눈물이 난다. 정세가 어수선하고 공산정권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월남하기로 결심, 남쪽에 있던 작은 아버지를 만나러 다녔다. 작은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광복 직후 평양에 잠깐 머물다 국군을 창설하기 위해 남한으로 내려갔다.



공산정권 강화되자 다시 천신만고 끝 남하
이화여대 영문과에 진학...'인생의 봄' 맞아

어머니는 가족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기 위해 3개조를 짰고, 박영숙은 첫번째 조로 막내여동생과 이웃집 할머니와 더불어 안내원을 따라 내려왔다. 안내원은 웬 일인지 아이들 편에 보내는 모든 돈을 자신에게 맡겨야만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안내할 수 있다고 했다. 어린 두 딸을 낯선 안내인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숭검정이 되었겠지만 내색을 안하셨다.

▲ 박 이사장의 인생의 봄은 이화여대 진학 후 만개했다. 여성운동의 단초도 그때 시작됐다. 사진은 1961년 대학생 시절 대한YWCA 연합회 활동 모습으로, 둘째줄 중앙 검은색 옷 입은 이가 박 이사장.

한참을 가다가 어디엔가 정차하는 틈을 타 판자로 막은 기차 창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살피다가 순시하는 군인과 눈이 마주쳐 결국 내리는 역에서 체포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안내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군인들 처소로 끌려간 그들은 박영숙의 재치 있는 대답과 임기응

변으로 다시 풀려났다. 박은 이미 어두워지고 수중에 돈 한푼 없이 나선 박영숙은 피곤함과 공포로 몸이 졸아드는 것 같았는데, 순간 어둠 저편에 그 안내원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던 안내원 덕에 삼팔선을 무사히 넘었고, 그에 대한 기억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하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 당당하게 서서 붉은 색 부채를 들고 자식들을 배웅하던 어머니의 불안함은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던 모습에서 느껴졌다. 딸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지극한 모성은 박영숙의 눈에 붉은 한 점으로 비춰졌다.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삼팔선을 넘어온 뒤 16사단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작은 아버지의 근무처 전남 광주로 내려가 그곳에서 전남여고를 다녔다. 당시 전남여고는 6년제였고 박영숙은 4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평민당 부총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박영숙이 광주 출신이어서 김대중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했었다.

박영숙은 책임감이 강하고 융통성보다는 충실함이 내재된 사람이었다. 둘째딸이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을 책임질 의무를 어머니와 함께 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과부 어머니를 남정네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감시하기도 했다 한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어머니께 미안해진다고 말한다. 그러한 책임감은 전남여고 시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했다. 작은 아버지는 의사는 고생이 너무 많으니 과를 바꾸라고 충고했고, 다시 진학 준비를 하여 영문과로 진학하는 바람에 대학을 2년이나 늦게 입학하게 되었다.

이제 박영숙의 봄은 이화여자대학 시절에 활짝 꽃 피었다.

김현옥 / 객원기자·작가 miriamkim@dreamwiz.net
937호 [기획] (2007-07-06)

인쇄하기

창닫기

평양에서 만주로 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다시 평양으로 와 중학교에 입학하게 돼,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고 한다. 덕분에 기초가 많이 모자란다고 했지만 그의 기초는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학교 때는 그렇게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평범한 학생은 아니었다.

소학교 때 한번은 담임선생님이 똑바른 자를 아이들에게 보이며 "영숙이처럼 이렇게 바르게 생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똑바른 생활, 말수는 적지만 자신의 의견을 아무지게 표현할 줄 알았던 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슴에 새겼던 작은 리더는 더 큰 세상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갔다.



▲ 1965년도 YWCA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을 당시 세계 YWCA대회 때 세계YWCA 회장 포터 박사(왼쪽에서 두번째)와 함께한 사진. 맨 왼쪽이 박영숙 이사장.

여학교시절 정인보 선생 만나 영어와 신앙에 큰 영향

공산치하가 된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 작은아버지가 사단장으로 계시던 전남 광주에서 여학교를 다녔다. 작은아버지가 무척 귀여워하는 조카딸이기도 했지만 작은아버지의 모습을 판박이해서 학교 때는 극장구경도 제대로 못갔다고 한다. 작은아버지와 너무 닮아 어디를 가든 눈에 띄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스스로 절제했던 박영숙은 작은 거인으로 수업을 쌓아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의사가 되려는 영숙을 걱정한 작은아버지의 조언대로 영문과 준비를 다시 하면서 그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인보 선생(국문학자 정인보 선생과는 동명이인임)을 만났다. 영어를 잘하고 철저한 준비를 시키던 정인보 선생에게는 영어교육뿐 아니라 신앙적인 영향도 받았다. 여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교과서를 완벽하게 암기시키며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분량을 다 외우지 못하면 몇번이고 다시 시키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다. 정 선생은 스웨덴보르그의 영성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 월남후 입학한 전남공립여자중학교 6학년 재학시.

스웨덴보르그는 1688년 스웨덴에서 태어나 1772년 영국에서 사망한 발명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다. 천재 과학자로서도 명성이 높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영성과 신비체험을 하며 영계에 대한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철저함, 단순함, 깊은 신뢰 등을 보이는 박영숙의 자취에서도 스승의 영성적인 영향이 느껴진다.

월남해 전남여고에 재학 중이던 1948년 10월 군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 반란군들이 여수와 순천을 장악했다. 경찰서, 행정 청사, 주요 시설을 장악하며 인민대회, 인민재판 등이 개최되자 박영숙은 공포에 떨었다. 일본이 망해 조국의 해방을 만주에서 맛았던 박영숙은 조국 해방의 기쁨이 식기도 전에 수탈과 분노에 찬 폭도들로부

앞줄 오른쪽 끝이 박 이사장. 작은 아버지가 사단장으로 계셔서 전남 광주에 정착했다.

터 폭력의 위협을 겪었다. 공산치하가 된 조국에서는 강압과 처벌, 분노의 정치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다시 한번 그 시절이 재현되는 것

같아 바깥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혼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입시준비로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 재학 중 6·25전쟁을 겪었다. 박영숙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살았지만, 박영숙 또한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유년과 청춘을 보냈던 것이다.

YWCA 활동하며 적극적인 구제사업..."내 꿈은 '공적인 어머니'"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한 그는 멋을 내고 낭만에 잠기는 평범한 여학생은 아니었다. YWCA 활동에 열성적으로 가담하면서 민족과 민중을 가슴에 품은 열사였다.

그는 소학교 시절 친구들과 놀며 자신의 꿈은 "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사건들 속에서 잊었을 법도 한 꿈이 심장 한 부분이 되어 숨결처럼 살아있었던 것 같다. 전쟁 중엔 YWCA 활동을 통해 전쟁고아와 피난민들을 도우며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대학시절 내내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농촌 계몽활동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하여 아예 한 학기를 휴학하고 지역에 내려가 무료로 영어를 강의했다.

개인보다는 민중, 이웃이 우선이었던 그의 삶은 YWCA에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활약했다. 충직하고 지혜로웠던 그의 또 한분의 스승은 박에스더 선생이었다.



▲ 대한YWCA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을 당시 YWCA 전국대회 행사장에서.

박에스더 선생의 강권으로 학교보다 YWCA 선택

박에스더 선생은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하와이로 이주, 하와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YWCA 연합회 국제부에서 활동하였다. 박에스더는 1947년 대한YWCA 고문총무로 임명된 뒤 1980년 하와이 양로원으로 떠날 때까지 여성 직업훈련 및 지도자 양성에 힘쓰며 한국YWCA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지방 YWCA를 신설하였다.

이후 여성교육과 계몽교육, 빈민구제사업에 헌신하면서 한국 여성운동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박에스더 선생은 충실하고 지혜로운 박영숙을 눈여겨보며 장차 YWCA를 이끌어갈 큰 재목으

로 여겼다. 박에스더 선생은 박영숙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의 밑에 와 일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에스더 선생이 미국에 가 있을 동안 학교를 졸업하게 된 박영숙은 당시 학생처장이었던 송은숙 선생으로부터 학교에 남아달라는 청을 듣게 된다. 신의를 중요시하던 박영숙은 박에스더 선생과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귀국한 뒤 직접 여쭙고 답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박영숙의 순진하면서도 고지식한 사건이 발생한다.

박에스더 선생이 귀국하던 당시는 입국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여의도 비행장 비행기 트랩까지 갈 수 있었는데, 트랩에서 내리시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박영숙은 "제가 학교에 남을까요? YWCA에 갈까요?" 하고 물었다 한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건이지만 박에스더 선생은 단순한 한마디로 "YWCA에 와야 한다"고 했다 한다. 그래서 훈련간사부터 시작해 총무, 실행위원 등 회장만 못하고 모든 직책을 다 섭렵했던 것이다.

안병무 선생과의 '담담한' 사랑 그리고 결혼...평생의 멘토·동지로

연애사건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연애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주변에서 박영숙 선생에게 관심을 가진 이들이 있었지만 몇 마디 나눠보면 바닥을 볼 수 있어서 재미없었다며 농담처럼 이야기했다. '공적인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열정적인 처녀의 참 애인은 이웃과 민족을 향한 연민과 애정이었던 것 같다.

그러던 와중에도 한편의 기억에 남는 연애 이야기를 하셨다. '민들레'라는 필명으로 몇년을 답장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께 애정의 편지를 보냈던 이야기를. 연애 이야기 치고는 너무 단순해서 내 질문이 조금 무색해졌다.

인생의 스승이요, 동지였던 남편 안병무 선생과의 사랑 이야기도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박영숙 선생의 스타일로 이야기했다.



▲ 1991년에 찍은 가족사진. 남편 안병무 박사와 아들 안재권씨와 함께.

강연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나이 많은 독신주의자(?) 안병무가 어느 날 한강 교수부지로 불려내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니가 결혼하기를 바라시니 나와 결혼해주시오"라고 하더라. "독일 유학까지 한 사람의 프로포즈가 그 정도입니까?"라며 박영숙은 한 마디로 거절했다. 독신주의자인 줄 알고 마음 놓고 대화하고 편하게 만났던 안병무 선생에게 받은 다듬어지지 않은 프로포즈에 내심 놀랐고, 결혼할 준비도 되지 않아 거절부터 했지만 결국 그의 평생 동반자가 되기로 승낙했었다.

박영숙 선생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의 조언자요 울타리인 안병무 선생과 결혼한 것이고,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다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라고 했다.

술한 고난과 희망의 세월을 함께 하며 박영숙을 민중의 어머니가 되게 한 안병무는 박영숙의 평생의 멘토였다.

남편 안병무 선생은

1922년에 평남 신안주에서 한의사 안봉식의 맏아들로 태어나 간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뒤, 한국전쟁의 민족적 비애와 더불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공동체운동을 전개하면서 <아성>을 출간한 민중의 신학자이며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다.

안 선생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1969년에는 월간지 <현존>을, 1973년에는 '한국신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계간지 <신학사상>을 비롯한 신학계 전문 학술서적들을 간행하면서 한국 교회에 근대 서구 신학을 소개하는 데 앞장섰다.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이유로 1975년에 한신대학교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이듬해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3·1 민주구국선언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출옥 후에는 '거리의 신학자'로 살아가면서 민중의 고난에 깊이 천착한 민중신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시대와 민중의 증언자로서 서구 부르주아신학에 도전하여 민중신학을 세계 신학계에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하였다.

1996년 10월19일에 소천할 때까지 왕성한 집필활동과 함께 민중신학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강의를 놓지 않았다. <해방자 예수>, <역사와 해석>, <성서적 실존>, <갈릴레아 예수> 외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김현옥 / 객원기자·작가 miriamkim@dreamwiz.net

938호 [기획] (2007-07-13)

인쇄하기

창닫기



▲ 1988년 고문치사 항의시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박영숙 이사장. 여성운동으로 시작한 그의 사회적 행보는 안병무 박사와 결혼하면서 민주화운동과 환경운동으로 치달았다.

박영숙은 대학시절부터 YWCA에서 시작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민당 부총재, 13대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친 여성운동계의 거목이다. 근대사회의 뼈대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 대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여성 환경운동의 선구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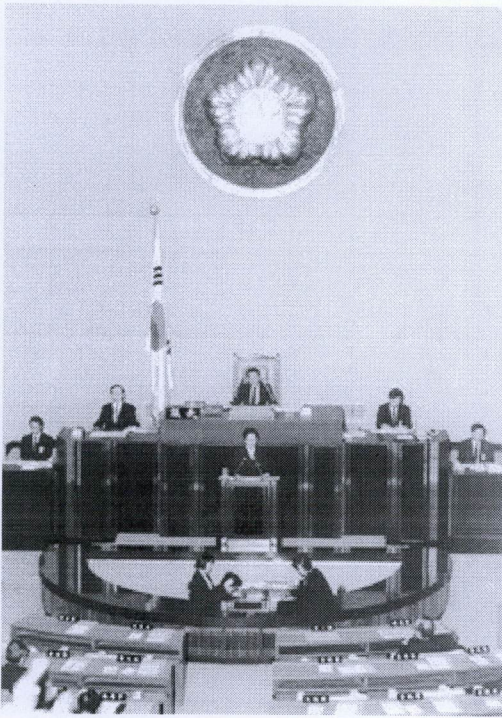
여성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사회복지운동 등에서 여전히 현역인 그가 칠순이 넘은 나이에 한국여성재단의 이사장직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들에게 큰 귀감이 아닐 수 없다.

박영숙은 어느 직위든, 어느 곳에서든 책상을 지키는 리더는 아니다. 누구라도 공감하는 그의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움직이는 지도자, 실천하는 지도자'이다. 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여성정치가로서 평민당 부총재로 정계에 두각을 나타냈을 때도 한결같았다. "운동력 있고, 실천하고, 일하는 여성정치인"이었으며, 외로운 고지에서 홀로 깃발을 흔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활동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많은 동료와 후배, 선배 여성지지자들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생기 넘치는 정치인이었다.

짧은 정치활동 중 가족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일거내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는 그의 성향과는 달리 정치활동의 생명은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역동적인 원내 활동, 실질적인 법 개정 특히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끝을 보는 성향을 충분히 발휘했다. 이렇듯 활기 넘치는 정치활동을 했지만 정당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1998년 여성신문과의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정당에 여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위치에



▲ 1988년 평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치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모습. 짧은 정치활동이었지만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큰 기여를 했다.

이희호 여사에 이어 두번째 유급총무로

한국에서의 YWCA 활동은 김활란과 김필레가 1922년 베이징 세계YWCA 회의에 참여하여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에 눈을 뜨며 사회봉사, 사회운동의 드넓은 바다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조선에서 Y운동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느끼고 조선에 Y를 독립적으로 설립하기를 열망하여 동분서주한 결과, 독립적인 조선Y를 창설할 수 있었다. 조선Y는 농촌계몽운동과 문맹퇴치운동, 조혼 및 공창폐지운동 등을 통해 근대조선을 만들어가는 데 큰 몫을 해냈다.

박영숙이 활동했던 1950년대의 Y는 해방되던 시기부터 제2 도약의 시기로 발돋움하고 있던 때였다. 박영숙은 대학시절 열정적으로 YWCA 활동에 참여하였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대학 내 YWCA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농촌계몽운동, 여성문맹퇴치운동, 전쟁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어요. 어느 활동을 하든 우직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나의 성격이었는데, 그 성품 때문에 어른들의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휴학하며 광주에서 학업을 갈망하는 소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정도로 Y 활동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혼신을 기울이며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그를 보고 박에스더 선생은 Y에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하였다.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학교에 남으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박에스더 선생과 대학공부를 마치면 함께 일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터라 대학공부를 마치고 청년부 간사를 거쳐, YWCA에서 유급총무로는 이희호 여사에 이어 두번째로 일하게 되었다. YWCA 활동은 아이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실무직에서 떠나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순화시키고, 생활과 직결되는 정치, 생태계와의 조화를 생각해야 하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남성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진출해 강자 위주의 정치구조와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일선에서 떠났는데 정치와 얽혀 있던 인연이 악연으로 작용해 그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내었다.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거명될 때 언론이 근거도 없이 그를 경제형 비리인사로 만들어 인생을 헛살았다는 자괴감과 가족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고통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아픈 경험을 더 큰 삶으로 가는 통과의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후배들이 정치인으로서 큰 몫을 해내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멘토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박영숙이 어릴 때 자신의 꿈을 '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 했는데 YWCA는 그런 꿈을 공적으로 시작하게 해준 징검다리였다. Y에서 시작한 그녀의 활동적인 삶은 중단 없는 전진이었으며, 길을 열고 닦는 선각자로서 시대를 앞서가는 삶이었다.

YWCA에서



▲ 1990년 평민당 시절, 미국의 부통령후보 제럴딘 A 페라로 여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집에만 2년 있었는데, 아이가 서너살이 되었을 때 YWCA가 회원으로 있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으로 다시 일하게 되었지요. 저는 Y에서 회장만 안하고 모든 직무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그는 환한 미소를 짓는다.

박영숙은 여협의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조직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자 했다. Y에서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왔던 그는 실천적이고 진취적인 여성들의 삶을 위해 활동의 폭을 색신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 사회풍조는 여성단체들에 기부를 하지 않아 재정적으로 매우 힘겨운 시기여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집권 시절인 당시에는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도록 강요했는데, 지지성명을 피하면서 지원을 받으려 하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박영숙이 이끄는 여협은 여성들의 권위 신장을 위해 자신들의 행보를 꾸준히 해나갔다. 박영숙의 활동의 특징은 농촌계몽, 문맹퇴치, 전쟁구호활동 등 인본주의적 활동이 큰 가닥을 이루고 있으며, 묘하게도 그 운동 안에는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환경운동 등이 늘 함께 하였다는 점이다.



▲ 1991년 85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때 (평양) 평민당측 고문으로 참석해 여운형씨 딸 여연구 여사와 함께 한 모습.

여협 활동 하다 남편 투옥 후엔 민주화운동 전념

여협 활동 이후, 1976년 민중신학자인 남편 안병무 선생이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투옥된 것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민중을 사랑하며 민중들과 호흡하며 민중들의 기쁨과 슬픔을 가슴에 품었던 예수님처럼 민중 사이에서 살고자 했던 안병무의 민주화운동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의 사상, 그의 글, 그의 삶을 사랑했던 동반자인 박영숙은 몸과 마음으로 민중들과 함께 하려는 남편의 고달픈 삶을 존경했다.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안 박사님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마음의 고통을 받지 말라고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나는 하나도 안 전해줬거든요."

가족들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세간에 떠도는 유언비어 어느 것 하나 전하지 않으면서 그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려고 했던 박영숙의 배려는 오늘 우리 후배들에게 보이는 평정심과도 통하는 것 같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리라. 그러나 일어난 일들이 태풍처럼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의 실천적 삶일 것이다.

결혼에 대해 특별한 생각도 계획도 없이 일에 열중하던 박영숙이 어설프게 청혼을 해온 안병무와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안병무의 명확한 논리와 함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득력 있는 그의 문장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박영숙의 삶에는 시기마다 중요한 멘토가 있었다. 정인보 선생, 박에스더 선생, 그리고 안병무 박사 이외에도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중요한 멘토들이 있었다. 달리 말하면 박영숙은 언제나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기회들이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 그녀를 성장시키고 그녀가 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자양분 역할을 하며, 그것들로 인해 평온하게 살던 그가 찬서리에 젖게 된 것은 편하지 않은 민중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안병무와 결혼하면서부터였다.



▲ 1991년 4월 21일 인천에서 열린 맑은공기 캠페인 당시 모습. 가운데가 박 이사장. 그는 여성주의적 환경운동을 개척해나갔다.

최대 멘토는 남편..."사람을 뺏속까지 사랑했던 안병무"

"남편은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도 갔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덕에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고 사명의식을 터득하게 됐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생각하면서 넓은 의미의 시민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정치활동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쓴 말을 하든 달콤한 말을 하든 주의깊게 들으며 가슴에 새기고 선별하여 실천에 옮기는 '경청하는 사람' 박영숙의 인생에서 가장 큰 멘토는 남편 안병무였던 것 같다. 결코 편한 사람이 아니었던 남편 안병무, 그로 인해 민주화운동, 환경운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미래를 보는 안목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한다.

"남편은 결코 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죽음에 임박해서는 자신을 전혀 생각지 않고 주변사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지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안 박사님께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뺏속까지 사랑했던 안병무가 그의 동반자여서 그는 너무 행복했다고 한다.

"그분은 제가 가장 예뻐 때가 책을 보다가 돋보기를 책 사이에 끼워놓은 걸 볼 때라고 해요. 그만큼 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내일도 현역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현옥 / 객원기자·작가 miriamkim@dreamwiz.net
939호 [기획] (2007-07-20)

인쇄하기

창닫기